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영업 정상화의 길로

문재인 대통령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 시작,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과 일상을 조화, 새로운 방역체계의로의 점진적 전환 모색”

“8월 수출이 같은 달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 한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업과 노동자들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위기일 때 더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에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협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상복귀와 민생경제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며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민비서’ 알람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이 34.9% 증가하여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

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물,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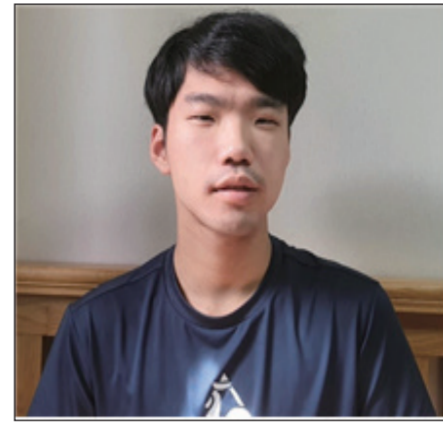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선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의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최광수/기자

[기고]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안톤 슈냐 책 '나를 슬프게 하는 7가지'에 대해 이렇게 슬프게 적었다. '대체로 가을철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들테면 비 내리는 짙은 밤, 소중한 사랑하는 이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져 갈 때 그때'.....

김무식은 '어떻게 할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이 근심에 찬 여러 밤을 울며' '밤을 지새워 보지 않은 그대들은 알지 못하리'...

현재를 고1 때 다문화 학생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다. 자신이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독일 BMW, 벤츠, 아우디에 관심을 가졌다면 경영을 전공해 보겠다고 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시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진지하게 물어왔다. 진지한 모습에 감동이 돼서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과목별 세부능력평가에 경영이란 내용을 넣기 위해서 수험평가를 잘해야 한다. 경영과 유사 과목인 경제, 영어, 수학, 사회 과목에 대해서는 특히 내신을 잘해야 한다. 결석과 지각은 있으면 안 된다. 봉사활동은 열정적 꾸준함을 가지고 해야 한다. 교내대회는 될 수 있으면 참가해야 한다. 등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힘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카톡을 통해 수험평가에 대해 도움을 구했다. 정말이지 성실함으로 열심히 했다. 9월 10일~14일 수시 기간이다. 저도 이 기간은 매우 바쁘다. 2학기 개강 수업과 다문화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책 출판을 위한 원고 작성 등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다.

현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첨삭 부탁으로 메일을 보내왔다. 메일을 출려해 읽어보는 도중 어린 시절 '뇌 병변' 판정을 받아 각종 치료를 많이 받았고, 현재까지 '뇌 병변'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뇌 병변'은 뇌 출혈로 인해 뇌에 피가 고여있다가 굳어져 뇌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뇌에 일정 마비 상태가 오는 병이다.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 기능장애와 지적장애에 따른 지능 저하로 학습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병이다.

나는 눈물기 알았다. 3년을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이야 안전에 대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여 한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학생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5.18 민주화운동선형으로 연세대학교에 18명이 합격했다. 민주화 전형 외에 더불어민주당이 분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이 있다. 대학이 모집 인원의 15% 범위에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그 대상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아! 누구를 염두에 둔 법안일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 꿈을 키워가는 현재를 보고 있으면 이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여러 밤을 울며' '밤을 지새워 보지 않은 그대들은 알지 못하리'

교수/김원호

경기도, “공정한 데이터 세상 함께 만들어요”, 8일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데이터 주권 실천 퍼포먼스 등 진행



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전 전북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축사가 진행된다.

데이터 주권 실천에 동참하는 해외 지방정부 ▲미하일 콜바트 (Mihail Kolvart) 에스토니아 탈린 시장 ▲로디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Lourdes Castro-Ramirez) 미국 캘리포니아 기업소비자 서비스 청장 ▲버나드 지리(Bernard Giry) 프랑스 일드프랑스주 디지털특보 ▲폴 마틴(Paul Martyn)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투자청 대표의 영상 축하메시지도 이어진다.

이밖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를 주관하고 있는 국내기관인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해외기관 ▲말테 바이어 카첸베르거(Malte Beyer-Katzenberger) 유럽연합(EU) 유럽집행위원회 데이터혁신정책관 ▲자스미나 바이런(Jasmina Byrne) 유니세프 국제정책담당관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도시, 정부, 시민이 함께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은 데이터 주권 실천 퍼포먼스도 열린다.

오전 11시 20분부터는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팀 버너스-리 경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창시한 인물로 최근 독점적 데이터 소유와 프라이버시 개선을 위한 탈중앙화된 개인중심의 데이터 통제를 지원하는 '솔리드(SOLI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디지털 세계의 변화와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생산의 주체가 데이터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아래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과 향후 변화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팀 버너스-리 경의 강연은 추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실시간으로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강연과 토론회가 개최된다. ▲박주석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의 '데이터 주권 회복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강연을 시작으로 ▲카트리나 도우(Katryna Dow) 마이데이터 글로벌 이사 겸 미코(Meeco) 대표이사,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오픈레이터 모델' ▲비비 라티노야(Viivi Lähteenoja) 마이데이터글로벌 선

임고문의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글로벌 시민운동'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마지막 세션으로 '데이터 주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내외 정부·학계·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 권현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경기도 데이터 주권 서포터즈 대표 1인이 패널로 참여한다. 앞서 전문강연에 참여했던, 카트리나 도우(Katryna Dow)와 비비 라티노야(Viivi Lähteenoja) 또한 영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경기도 유튜브 채널 및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홈페이지(dsif2021.com)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2회에 걸쳐 데이터 주권의 국내외 사례를 알아보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웨비나'를 사전 개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조혜영/기자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내 꿈을 펼치다

경북농업기술원, 6일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4기 교육 개강식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6일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합격생 52명을 대상으로 상주 성주농지연휴양림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4기 입문교육 개강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농업기술원장의 특별 강의와 청년농업인 창농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활용에 취약할 수 있도록 현장경영실습, 판매유통 창업초기 전문강연부터 전 과정 보육관리를 통해 영농에 입문할 수 있도록 국내 유수의 전문가를 엄선 입문교육 강사를 초빙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 4기 교육생은 전공에 무관하게 스마트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올해는 1개월 간의 공개모집에서 3대 1의 높은 지원율을 보였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52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입문교육, 실습교육, 경영실습으로 3단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 단계인 '입문교육'은 이달 6부터 11월 10일까지 9주간에 걸쳐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작물재배기술, 수경재배기술, 스마트팜의 이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인 '실습교육'은 6개월간 작물별 선도농가 농장에서 진행되며, 첨단 스마트 온실에서 작물의 양분이 되는 배양액 제조부터 농작물 수확·포장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경영실습'은 12개월간 혁신밸리 내 경영실습 온실에서 자가 경영으로 직접 농장운영 실습을 한다.

연간 교육 수료생 12명 정도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우선권과 농업종합자금(스마트팜) 최대 30억, 5년 거치 10년 균환상환(1% 고정금리), 창업자금지원과 임대온실(500평/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상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증가하는 농업경쟁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첨단 스마트팜 조성으로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전남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역민 의견 수렴

간담회 통해 센터 운영·방역관리 등 투명한 공개 약속

전라남도는 3일 강진 도암면의 전라남도인재개발원에서 지역 주민과 코로나19 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지만, 사전에 주민과 정보공유가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주민과 상호간의 사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환자

방역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남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과정에서 추가감염 사례는 발생한 적이 없어 지금껏 잘 관리하고 있지만, 환자-직원 간 철저한 동선 분리,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청-인재개발원-강진군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강진군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중상, 경증 환자가 주로 입소한다. 지난 7월 개소한 전남도인재개발원에 86명, 8월 개소한 나주 다도면의 한전KPS인재개발원에 61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김영민/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8,051억 심의 · 의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051억에 대한 심의·의결을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6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

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언택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등 코로나19로부터의 교육회복 정책과 교실 환경개선,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학생과 교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 예산 515억 660만원을 조정해 수정안 의결

가 담았다. 특히, 3일 심의 이후에는 권정선 소위원장, 고은정 위원, 국종범 위원, 박세원 위원, 성준모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515억 660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6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사업 중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청정기 1개월 분 임대 예산과 공기 순환기 설치 예산에 대해 시급성과 임대 기간에 따라 구매액보다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해 감액을 결정하였고, 그 외 1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였다. 아울러, 교육행정위원회는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교육재난지원금에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지급 방법을 다각도로 검

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이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으며, 심도있게 심의하여 더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과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6일 오전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9월 1일자로 부임한 교육장들의 각오와 교육 방향을 청취하고, 신임 교육장들에게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고,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도 출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 “상수원 수변구역내 우량농지 활용방안 강구” 촉구



들관 한 가운데 수목식재, 수질개선효과 미비, 친환경농법 활용해야

문행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9월 6일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환경부가 매입한 상수원 수변구역 내 우량농지를 도민들이 수질기준 맞게 친환경농법 등으로 재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순군 사평면 사평들 사례를 보면, 환경부가 매도를 희망하는 도지에 한해 개별적으로 매입하다 보니 들관 한 가운데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한 오히려 수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남도 전체를 봐도 국가가 매입한 수변지역 농지(전답)의 경우 약 65%가 이런 현상에 놓여 있어 환경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수질보전의 목적과는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나랏돈으로 수질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아래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을 몰아내는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전라남도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해 농지매수

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후계농민들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해주어 친환경 또는 무농약 친환경농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도 보전하고, 젊은이들이 농업소득을 올리며 고향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상생하는 길을 찾아 주도록 김영록 지사께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문행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변지역에 대한 용어뿐만 아니라 전제 물었다”고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도민들이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고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한편 “수변구역”은 「영산강심정강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댐상수원 댐과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의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 주암호, 동북호 등 5개댐 지역 299.39㎢를 지정하였고 지금까지 국가가 매입한 전체 토지 19.6㎢중 전담면적은 12.83㎢(65%)이다.

김영민기자

박영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해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2일 본회의 통과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 기간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조례안 심의 등에 주력하며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보였다. 박영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언 됐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기업이 해외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 약화와 일자리 부족 등 경기 침체가 지속 되어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 △해외의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 경북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도에는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서 위원은 8월 24일 개



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실적이 부진한데, 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며,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출선수범

해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시책과 예산 집행 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기기자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 “코로나19 백신 이상 증상 환자 관리대책 마련 시급” 주장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 전북도의회 6월 2021년도 출생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과정에서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과 군산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등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도민들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질병관리청 등의 보고에 따르면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드문 확률로 심근염과 심낭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심뇌혈관 계통의 이상 증세는 대부분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까지도 젊은 청년의 백신 접종 후 시일 내 심장마비 사건이 보도되는 등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장마비 등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특히 이상 반응이 주로 16세 이상



의 청소년과 젊은 연령의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청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도내의 이상 반응 발생 현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고, 도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승일기자

경남도의회 예결위, 경남도교육청 추경 2억 1,625만원 삭감



경남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하루 예결특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5,561억원보다 4,422억원(8.0%)이 증액된 5조 9,983억원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2학기 전면등교 대비 교육청 준비현황과 학력향상 지원, 스마트 미래교육환경 구축,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심사조정 세출사업은 반송초 진입도

로 확장 등 3개 사업, 2억 1,625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10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다. 손태원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교육현장은 2학기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방역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펙스코(FXCO), 이번에는 제대로 개관 될까?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9. 6(월) 오전 개관 준비가 한창인 펙스코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개관이 두 차례 연기된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진디자이너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펙스코(FXCO)는 당초 올해 5월 개관을 목표로 했었다. 그런데, 개관 준비 중 누수 현상이 발견되어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8월로 개관이 한차례 미루어졌었고, 최근에는 입점업체와의 계약부진 등을 이유로 또다시 10월로 개관을 연기한 상황에서 지난 8월 27일 프리오픈(Pre Open)한 상태로 운영중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는 보수공사 상태와 입주 계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개관 준비 상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보았다.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장은 “개관을 연이어 연기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질타하면서, “이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개관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라며, “향후 펙스코(FXCO)가 지역의 패션분야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2021년 9월 2일 본사 사령

▶ 조혜영 국장
[정선군청]
▶ 최정근 부장
[충남도청, 천안시청]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영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대표전화: 1899-9659
편 집 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고강도 대응책 지속...특별점검 이어 마무리점검반 가동

경기도, 7.31.~8.29. 여름 성수기 맞아 경기 청정계곡 특별 점검 실시

경기도가 지난 7~8월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해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특별점검'을 추진한 데 이어, 9월에도 마무리 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하 바 있다.

이어 간부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만들고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북부청 실국장 11명,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의 간부공무원과 직원등 292여명이 참여하는 11개의 '특별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은 시군 직원 및 계곡별 하천지킴이들이 동참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물막이·파라솔 등 업소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총 3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6건 모두 철거·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완·발전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공공진입로, 계단, 입시화장실 등 편의시설 20건을 신설·확충하는 방안도 현재 시군과 협조해 추진·검토중에 있다.

동시에 '도-시군 합동 불법행위 신속대응단'을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 도-시군 공무원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신속히 조치하는 활동도 벌였다. 불법데크 설치 등 현재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둔 7~8월

성수기 특별점검을 마치고,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주 2회씩 '마무리 점검반'을 가동한다.

여름 성수기 이후 하천변 쓰레기, 훼손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그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어떠한 작은 불법 시설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단속을 추진해 도민 품으로 돌아오는 청정계곡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도는 향후 모바일 쿼알(QR) 코드를 활용한 '(가칭)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 자율 신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등 점검반의 점검·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들이 간편하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행위에 대해 쿼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는 5월부터 추진한 사전 점검과 7~8월 성수기 집중점검,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사항을 살피고 시의 적절히 대응해 이용자·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며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내년에는 주민 공동체 위탁관



리제, 이용자 QR코드 신고제, 하천계곡지킴이 기능개선, 도·시군·공동체·상인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부천시 태풍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현장 등 100곳 안전점검 실시



총 36명 인력 투입 및 시, 광역동, 관내 건축사 합동 점검

부천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20개소 등 총 100개소 건축현장에 대해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간 건축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시, 광역동, 관내 건축사 합동으로 진행하며 총 36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약화에 대비하여 흙막이 보강상태, 토사유출 등 수방 안전관리 실태, 돌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휨스 결속상태,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부천시에 따르면 태풍이 발생하면 집중호우가 동반되고 강풍에 따라 비산물로 인한 인군 통행인의 안전사고 발생 및 전력·통신선 단선 등

피해가 우려되어 비상연락망 확보 등 철저한 사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난 9월 3일 태풍대비 건축현장에는 부천시 한상휘 주택국장도 함께 관내 중동에 위치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에 태풍 내습을 대비하여 공사 현장 가설물타리와 비계(임시가설물) 등 가설자재가 날아다니거나 낙하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자재 결속 보강 등 공사 현장 주변 절개지와 배수로 준설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사전에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태풍 상황 모니터링과 공사현장 출입 통제를 철저히 수행해달라"면서 "유사 시 응급복구 인력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및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박종훈 교육감, 창원 용남초 방문해 등교 맞이, 학사운영 및 방역 상황 점검

경상남도교육청은 전면등교를 시작한 학교의, 안전한 등교수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6일 박종훈 교육감이 창원 용남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사운영 및 방역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 시간에 창원 용남초등학교를 찾아 교문 앞 등교 맞이 활동, 현관 앞 발열 점검 및 거리두기 등 방역상황과 학사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부터 2학기 전면등교에 따라 학교에서의 일상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며, 9월 6일 이후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학교는 전체 955교(96.8%)에 이른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내 감염 비율이 낮아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은 1학기 학사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동안 만들어 온 빈틈없는 학교 방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2학기 전면등교도 차질 없이 이루어내어 학습격차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시흥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합동 단속



시흥시는 하반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주

변 불법광고물 일제 합동 단속을 펼쳤다.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은 지난 9월 2일 정왕동 군서초등학교 일대에서 경기도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을 다수 제거했다.

이날 합동 단속은 2021년도 하반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시는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주변 유동, 고정광고물 단속을 운영 중이다.

정비대상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 주변의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등)과 안전을 저해하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등이다. 일차적으로는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직접적으로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선정성·사행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수거, 행정처분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정비 작업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준근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수원문화재단, 우리동네 '숨은 맛집' 콘텐츠 공모전 개최

수원문화재단은 2021 우리동네 숨은 맛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골목 식당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민 또는 수원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팀별 최대 2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방송, 유튜브 등에 소개가 안 된 수원지역 내 동네 맛집을 영상(3분 이상) 또는 라디오(20분 이상) 콘텐츠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내달 10일까지이며 전문가심사를 통해 30편 내외로 선정 후 편당 10만 원을 콘텐츠 제작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콘텐츠는 미디어플랫폼 '톡톡수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시민참여프로그램 '방방곡곡 동네TV'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형복 수원미디어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시선으로 지역 상권을 직접 홍보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콘텐츠를 발굴하고 온라인과 지역방송을 통해 확산하고자 개최했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 '1.5℃ 기후의병대' 발대식 개최

자발적인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 대상 '1.5℃ 기후의병대' 조직

광명시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구 온도의 1.5도 상승을 막고자 '1.5℃ 기후의병대'를 조직하여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가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에 광명시는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5℃ 기후의병대'를 조직했다.

'1.5℃ 기후의병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 참여단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들 중 기후의병 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시민은 '1.5℃ 기후의병장'으로 위촉하여 마을 단위의 기후위기 의식 함양 활동과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9명의 시민 대표는 광명시에서 추진한 '함께 그린 광명 쿨루프 사업'에서 추진한 기후 변화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로,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1.5℃ 기후의병대'로서 앞으로 기후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위기 인식에 대한 시민들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느끼며, 이에 따른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며 "1.5℃

기후의병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여 내실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향후 시민들의 '1.5℃ 기후의병대'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내에서 지킬 수 있는 기후행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의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그린 광명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 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부기자

안성남 구리시장, '전통시장의 일일 라디오스타'로 시민과 소통 나서

구리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시민DJ와 유쾌한 이야기 풀어내 호응

안성남 구리시장이 지난 3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구리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과 공감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구리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는 시민 DJ가 직접 기획해 진행하는 방송으로, 상인과 시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이는 라디오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내 전광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된다.

안성남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을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구리사랑카드 이용안내 ▲구리전통시장 온라인 정보기 ▲지역 상권 활성화 방

안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안성남 시장은 직접 선곡한 노래 등을 소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사회에 위로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방송을 진행한 이진숙 시민 DJ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구리시에 전하고 싶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허심탄회하게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소통의 자리가 자주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남 시장은 "구리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시민과 특별한 교감을 할 수 있어 설레는 시간이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등 여러 지원과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최만식기자

하남시, '마을 잇다'로 주민간 이해와 공유 활성화



하남시는 주민 간 마음을 잇는 '마을 잇다' 프로그램을 지난 7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8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을 잇다' 프로그램은 원도시와 신도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의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상호 교류하는 사업이다. 지역재생의 기초를 확립하고 주민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만남-공유-결연'이라는 3단계로 주민 간 소통 및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토론 등으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탐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하남시민과 석바대상인회, 청정하남 시니어협회 등의 지역 공동체들도 같이해 의미를 더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주민과 공동

체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몰랐던 하남과 마을, 그리고 하남시민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원숙 도시재생과장은 "일곱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마을의제 발굴하기, 공동체 활동 공유 및 탐방하기 등의 교류가 이어졌다"며 "'마을 잇다' 프로그램이 주민과 지역공동체 교류의 밑거름이 되도록 네트워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대학, 마을 잇다와 같은 도시재생 주민역량 기반사업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강호기자

안성시 맞춤형상담 지원, '노리마중'으로 오세요!

'노리마중'은 '놀이로 마음이 가는 중'이란 뜻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다양한 놀이로 당근(당신의 근처)마켓처럼 당신의 근처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동지역에서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권신란 대표는 지난 9월 1일 노리마중 공간 개관식에서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은 현재 지속 중인 코로나 시기에 맞벌이 부부의 아동돌봄을 돕고자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아동돌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방향을 찾는 주민 연계사업"이라며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통해 발굴된 강사들이 대표가 되어 지역의

아동돌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올해 1월 공고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은 경기도 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사각 공간을 해소하는 등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돌봄 휴식 및 학습공간의 시설비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3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리마중'이 유일하게 안성시 최초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 중이다.

조혜영기자

양주시 은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카카오톡 채널 활용한 '비대면 복지상담창구' 운영

양주시 은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사업홍보를 위한 '은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했다.

'은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채널을 구독하면 누구나 1:1 채팅으로 비대면 복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관련 최신 정보와 특화사업에 대한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복지상담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제보는 24시간 가능하다.

또한, 이 채널을 통해 제보된 위기가구에게 은현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은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현 은현면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소외이웃을 적극 발굴해 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The 스마트하고, 가치 행복한 도시 안양'을 위한 시민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안양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민여러분의 창의적 생각을 기다립니다."

안양시가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1 정책공모전을 운영한다.

정책공모전의 주제는 'The 스마트하고, 가치 행복한 도시 안양을 위한 아이디어'.

4차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안전·교통·환경·건강·복지, 민원행정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안양형 뉴딜' 활성화 정책 방안이 공모분야다.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창의적 제안도 가능하다.

응모는 관내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이거나 학생을 포함해 안양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책공모전에 관심있는 시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 정책기획과/우편번호 14053)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시는 11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를 발표, 금상(5백만원)·은상(3백만원)·동상(백만원)·장려상(50만원)·노력상(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양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발전적 생각을 기대합니다."며 이번 공모전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정부기자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 전달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 자립청소년 후원금 전달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지난 6일 자립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경인지사장은 자립생활관 입소생들의 학습지도와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후원금은 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에 전달되어 입소생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용품 지원에 사용할 것을 협의했다.

원종균기자

이번 자립청소년 지원은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연계로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인 교류와 자원봉사를 연계하기로 했다.

김현보 지사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불우위기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시민들 감동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펼쳐달라”

백군기 시장, 6일 간부 공무원 티타임서 강조...재난지원금 신청 만전 기해줄 것 당부

백군기 용인시장은 6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의 티타임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을 앞두고 어수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을 주문한 것이다.

백 시장은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복지, 일상생활 관련한 민원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며 “작은 일이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백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체

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예산 확보·관련 법령 검토 등의 절차가 있어 어려운 일”이라며 “어렵다고 시작 전부터 포기하지 말고 신규 공직자들과 함께 고민해 혁신적 사고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이날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으며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은 오는 13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오산시제26회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자 시상식 개최



오산시는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이해 지난 3일 오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 3명과 「제4회 행복한 아빠 육아·가사 사진전」 입상자 3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간소하게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만 진행했다. 과상욱 오산시장은 “여성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공헌하신 유공자 3분과 건강한 육아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한 「행복한 아빠 육아·가사 사진전」에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며 “여성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여성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저를 포함한 오산시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광명소방서, 홍범도 장군 시민분향소 참배

78년 만에 귀환한 홍범도 장군 추모



광명소방서는 6일 간부 소방공무원과 함께 하안동 광명시평생학습원 전시실을 찾아 홍범도 장군 추모 전시 및 분향소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身命)을 바치고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을 추모하고, 그 희생정신과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범도 장군은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본격적으로 항일무장투쟁에 나섰다. 1920년 독립군 분거지인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 최대의 승전을 거뒀다. 그 뒤 청산리전투에 제1연대장

으로 참전해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소방서는 홍범도 장군 추모 공간에서 헌화 및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추모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어둠의 시기 고통과 좌절 그러나 우리는 저항했고,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주제로 전시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관련 자료와 사진 30여 점을 관람하고 78년 만에 귀환한 홍범도 장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최준 서장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 ‘손 편지 쓰기’ 캠페인 실시

남양주시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살 예방 주간 캠페인 ‘손 편지 쓰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마음을 담아 쓴 손편지를 전달하며 주변 힘든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정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함께 힘을 내 코로나19로 집체돼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마음을 담아 작성한 손 편지를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서 캠페인도 확산될 수 있도록 #ncmhc, #생명사랑랜선캠페인, #자살예방주간손편지쓰기 해시태그를 입력한 다음 게시물 링크를 네이버 폼 신청서에 첨부해 신청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및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캠페인 참가자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햄버거 쿠폰이 상품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변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발견해 자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 전체에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용인문화재단,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만든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는 기회 선사

용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용인시에서 주최하는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가정에 배송되는 예술 체험 키트 ‘가족의 모양’을 운영한다.

‘가족의 모양’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각 가정에 배송된 예술 체험 키트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예술체험프로그램으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만든 작품을 추후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전시할 수 있는 단계별 예술 체험을 제공한다.

‘집으로 배달되는 예술상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트딜리버리와 협력 개발 한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가족 200가구이며, 가족 간 대화로 소통하지 못했던 마음과 감각을 간단한 게임을 통해 접촉된 손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체험



할 수 있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소장하는 예술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과 유대감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배워서 남주자! 경상남도 하반기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주민대학개강

2021년 살고 싶은 섬 남해 조도·호도와 통영 두미도에서 진행

경상남도는 2021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남해 조도·호도와 통영 두미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학을 개강한다.

남해 조도 어촌체험센터에서 9월 6~7일, 통영 북구 마을회관에서 10월 18~19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섬 주민대학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는 3년 동안 총 6학기제로 운영하며, 올해 1월 상반기 주민대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하반기 주민대학에는 경남 남해, 통영, 전남 고흥 사무장을 강사로 초청해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를 설명하고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민들의 시야를 확대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선정 2014년 농촌체험관광 1등급 마을인 남해 두모 마을의 강미라 사무장은 두모 마을의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을 소개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통영 세포마을 위관옥 사무장은 2014년 농촌현장포럼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세포마을 주민들이 합심한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변화한 세포마을을 소개한다.

전남 고흥 연홍도 최완숙 사무장은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연홍도의 추진 사업 소개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윤미숙 강사는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사업과 동피랑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번 하반기 섬 주민대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민 대표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강사진과 학습자 모두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두용 경남도 섬어촌발전과장은 "주민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를 배워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를 통해 2021년 살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통영 두미도와 남해 조도·호도는 올해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광용기자

"새로운 복구를 만나다"...부산복구, '관광영상 공모전' 개최



오는 11월 1일부터 이메일 접수, 대상 1편 150만원 등 총 8편 선정

19일까지이고, 복구 문화유산과 역사유산, 관광유산 등 숨은 매력을 담은 5분 이내의 창작영상을 제작하여 참가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작품성 △관광홍보 콘텐츠 활용가치 등을 평가하여 대상(1작품), 최우수상(1작품), 우수상(2작품), 장려상(4작품) 등 총 8작품을 시상한다. 상금은 대상 150만원, 최우수 8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이다.

선정 결과는 12월 복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입상 작품은 구 공식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희 구청장은 "우리는 독립의 염원이 깃든 구포탄세거리부터 동화 속 풍경을 가진 만덕 레고마을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라며, "이번 공모전에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복구와 당신 AND YOU, 복구와 새롭게 AND NEW"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관광 홍보에 관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1개의 작품만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남궁영기자

울주군, 추석맞이 녹지대 및 쉼터 일제 환경정비



울주군은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 가로수 등 녹지대와 마을 입구변에 조성된 쉼터를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관내 가로수(7만 5,663주), 수벽(41km), 가로화단(203,940㎡), 교통섬(30,023㎡), 중앙분리대(8,457㎡), 도로소공원(138,552㎡) 내 식재되어 있는 수목

등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가로수 및 녹지대 내 지주목 정비작업,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및 수형불량목 제거, 관목류 전정, 제초작업, 산책로 정비 등이다.

울주군은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 및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대 및 쉼터 내 노후 벤치, 파고라, 가로등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수시점검과

유지보수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결하고 쾌적한 녹지대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추석 전 관내 녹지대 및 쉼터 환경정비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고성군은 수상스포츠 선수들에게 미래를 선물합니다.



거창군,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개최 홍보

거창소방서는 교육·홍보 콘텐츠 발굴과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급처치 사례 또는 응급처치법 영상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안전교육·홍보 콘텐츠 발굴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공모전 참여는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하거나 가장 상황을 연출한 응급처치 사례 또는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5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해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무총리상,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소방청장상 등 상장 17점과 시상금 총 8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후 수상작품은 소방안전교육 자료로 제작되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장병철기자

고성군은 9월 3일 오전 11시 30분 고성군 외 7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관계기관별 수상스포츠대회 개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전국카누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가저수지가 보이는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개최, 영상상영, 고성군수 환영사, 협약서 서명식, 소통간담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군과 고성군 의회는 대회 운영과 예산지원 △수상 안전은 통영해양경찰서 △스키안전사고 및 교통통제는 고성경찰서 △학생수상 스포츠체험행사 추진은 고성교육지원청 △안전시설물 점검은 고성소

방서 △경기 장소 제공 및 기반시설 정비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대회 유치는 대한카누연맹이 상호 협력해 수상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수상스포츠 기반시설 구축과 스포츠관광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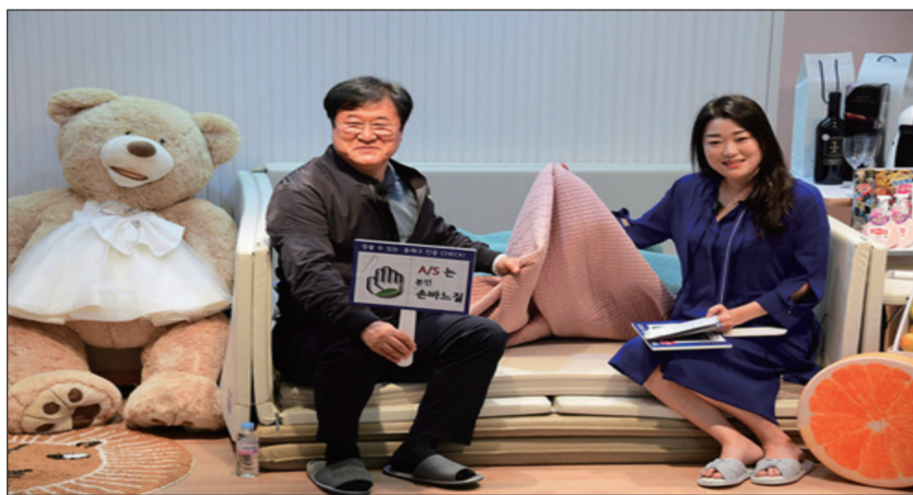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작은 도시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상스포츠 선수들에게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장 제공을 통해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성군과 대한민국 수상스포츠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동래구, 온라인 아나바다 홈쇼핑 운영

에코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자원 나눔 운동

부산 동래구는 지난 4일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성혜진)에서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관내 15개소 어린이집 영유아 가정과 함께 '에코어린이집 발대식 및 온라인 아나바다 홈쇼핑'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자원 순환의 날은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공동으로 매년 9월 6일을 자원 순환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이날 15개소 어린이집의 영유아 275가정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에코어린이집 발대식과 각 가정에서 기증한 장난감, 마사지기 등을 온라인 아나바다 홈쇼핑을 통해 무료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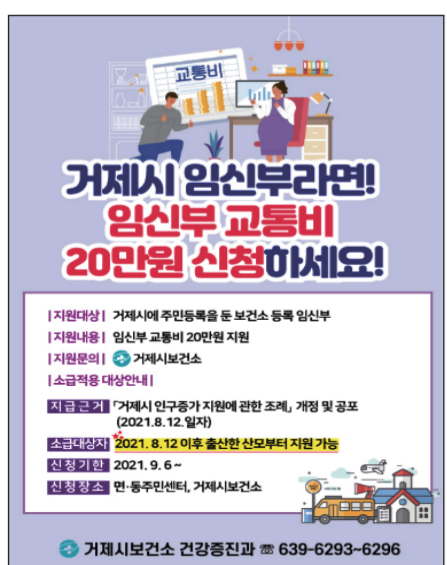
에코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시기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워주기 위해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동래구, 동래구새마을부녀회, 어린이집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

아 가정, 보육교직원에게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월 1회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헌 옷 수거 후 천연비누 등 에코물품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아나바다 홈쇼핑은 에코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한 가정의

남궁영기자

거제시, 9월부터 임신부에게 교통비 20만 원 지원



거제시는 한시적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산전관리 이용편의 제공 및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임신부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적 사업 부족으로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전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임신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 중 산전관리율을 높여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등본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부수첩이다.

또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공포(2021.8.1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 지급 소급적용 대상이며, 소급적용 대상자에 한해 2021.9.6. 이후부터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강영훈기자



함양군,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함양군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 더 연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금지이나, 백신 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4인까지 사적모임 제외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 허용했던 것을 추석에 없

는 결혼식인 경우에는 99인까지 허용(취식은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하는 것이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다.

서순수 함양군수는 "그 동안 군민 여러분의 협조로 확진자가 크게 줄어 들었으나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확진자는 급증할 수 있다. 감염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의심증상시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지하시어 접종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전남 동부권,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도약 기틀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 국제행사·대형 SOC·환경산업 등 두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취임 3년 만에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의 신해양, 관광, 환경 수도 도약' 기반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제행사 유치, 관광 활성화, 대형 SOC 확정,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확정돼 전남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섬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다. 30개 나라 200만 명 이상이 방문, 6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4천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전망된다.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연이은 국제행사 확정 쾌거다. 동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재현이 기대된다.

전남 동부권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안의 섬, 갯벌 등 자원이 무궁하고, 전남 미술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도립미술관 등 생태, 관광, 문화자원의 보고다. 지난 7월 순천·보성 갯벌이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전남도는 다도해습지정원, 갯벌 통합관리센터 등 유치를 발 빠르게 준비해 갯벌의 보존과 활용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3월엔 전남 미술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남도립미술관이 광양에 개관했다. 문화를 향유하는 참여와 소통 공간으로, 작품의 예술적 가

치는 물론 시설, 규모 면에서 수도권 미술관과 견줄 손색이 없다. 또 지리산에 '영호남 도서내륙 관광벨트'를 조성해 지리산 터널, 케이블카 등 영호남 광역관광 SOC를 구축하고, 섬진강에 숙박단지과 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섬진강권 복합휴양관광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청사도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열린 청사로 구축해 미술작품 전시, 공연 등 동부권 공동체의 중심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대형 SOC가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남해안 남중권 거점도시 기반도 구축되고 있다. 최근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정부 예비타당

성소사를 통과, 과거 1시간 30분 소요였으나 앞으로 1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 해저터널 자체가 랜드마크 시설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영호남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이 기대된다.

6월에는 전라선고속전철이 국가계획에 반영, 서울-여수를 38분이 단축된 2시간 7분대에 주파하게 돼 '무늬만 고속전철'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이밖에 여수-고흥 백리섬섬길이 완공됐으며, 곡성 석곡IC-겸면국도 위험구간이 설계 중이다. 여수화태-백야 연도교도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다.

동부권 산업 전반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전통 주력산업인 화

학·철강 산업에 2024년까지 1조 1천364억 원을 들여 노후 산단을 친환경 산단으로 대전환한다.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은 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했으나 정부 지원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민선7기 들어 SOC, 산업, 관광 등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어 지역발전 기대가 크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동부권의 다



양한 도정 성과는 주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로 이뤄진 값진 결과"라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되도록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해 전남을 대한민국 신해양, 관광, 환경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가을바람과 찾아온 2021여수국제미술제, 철통 방역 속 '3일 개막'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 주제로 9월 3일~10월 3일까지 개최

여수 대표 전시회 2021 여수국제미술제가 3일 개막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여수국제미술제는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박람회장 전시홀(D1~D4)과 여수엑스포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를 주제로, 근현대사의 흐름 속 절제하게 타자화 된 아시아의 상처투성이 역사를 돌아보며, 이를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어 치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여수국제미술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테이프 커팅을 제외한 각종 부대 행사들을 전면 취소하고 전시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시장마다 방역 도우미를 배치하여 출입명부 작성 및 관람 시간 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은 국내·외 작가 74명의 야외 조각

20점, 회화·사진·영상미디어·설치미술 206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야외 공간을 활용한 조각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어 주목된다.

각 전시장에 배치된 QR코드를 읽으면 작품의 의미와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는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현대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준비하였으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해남군 바나나 영농현장 방문



지난 3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해남군 옥천면 영농현장을 방문해 아열대 과수 바나나 재배현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바나나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농장을 방문한 허태웅 청장은 신기술 투입 등으로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가 해남군의 지역전략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허태웅 청장은 박종재 전남 농업기술원장, 김동환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등 관계기관 10여명과 바나나 재배단지를 방문하였다. 해당 농가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재배단지조성』 사업에 선정, 4,300㎡의 바나나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스마트팜을 이용한 무농약 바나나를 금년 11월에 약 24톤 가량 첫수확할 예정이다. 수확한 바나나는 급식, 대형마트, 해남미소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4년부터 아열대 작목 발굴과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해 현재 바나나, 애플망고, 무화과, 참다래 등 아열대 작목 16작목이 180여 농가가 125ha에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작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사업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육성" 주제로 선정되어, 2021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사업비 2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 확대 및 재배기술 연구 등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소비 성향의 변화로 아열대 작목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양한 작목을 개발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농업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영윤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 연대를"



중국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에 2050 탄소중립 등 도정 소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에서 열린 '2021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에서 녹화 방식의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은 산시성에서 2016년부터 개최한 중국 국가급 행사다. 국내외 에너지 혁명, 과학, 미래 발전,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는 전문 교류 자리다.

올해는 '에너지, 기후, 환경'을 주제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과학기술부 및 글로벌 에너지 선도 기업 등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해 저탄소 발전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산시성 해외 교류지역 대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영상 녹

화 방식의 기조연설을 통해 전남도의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 선도, 2050 탄소중립 저탄소 에너지 정책 등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산시성은 이번 포럼과 함께 온라인에 박람회 부스를 개설해 운영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3대 에너지 정책과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선양규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교류가 다소 위축됐지만 해외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면서 지속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호교류가 전남도와 해외 우호 지역 간 관계를 더욱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실천마트 협약식' 개최

광주자원순환협의체·로컬푸드 빅마트, 1회용 줄이기 등 친환경 소비 확산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자원순환시 민실천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광주자원순환협의체와 '로컬푸드 빅마트'의 '1회용·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및 친환경 소비확산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마트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광주시가 민선7기 사회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등 광주형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 자치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 50여 명으로 구성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광주시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단계인 생산·유통과정의 1회용·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지역사회 친환경 생활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자원순환협

의체와 로컬푸드 빅마트는 점포 운영 시 스티로폼 포장 받침대(트레이), 속비닐 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과일·야채코너 1회용·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소비자·직원대상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등 시민, 행정, 업체가 동참하는 자원순환 실천마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광주시는 대규모 점포(대형 마트) 등 협약 참여업체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실천 문화를 조성해 자원순환도시 광주 만들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자원순환협의체는 자원순환 주간(9.6.~9.12.)에 자원순환 실천방법 온라인 홍보와 인증사진 공모 등 '자원순환 시민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자원순환마을(우산동 두루두루마을) 자원순환 챌린지도 함께 추진한다.

김덕윤기자



함평 월야면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NO!'...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출동한다.

복지기동대원들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 5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부터 도배·장판 교체, 수도 배관 작업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월야면 복지기동대는 민·관협력체로 20여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집수리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인상 월야면장은 "복지기동대원들의 적극적인 재능봉사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덕분에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더 따뜻이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남원시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

23.3㎡ 규모로 스튜디오 구축... 자체 콘텐츠 제작, 송출



남원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과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자체 동영상 제작 및 송출할 수 있는 '남원시 미디어 스튜디오'를 개소했다.

시는 시청 내 지하 소회의실 내에 23.3㎡ 규모로 스튜디오(방송벽, 크로마키)를 구축하고 선명하고 화사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2대, 편집기 등의 방송 장비를 갖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스튜디오 개소에 따라 향후 각종 정책을 알기 쉽게 시민이 꼭 알아야 되는 시청뉴스 등을 월 2회로 제작, 송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향후 남원시 농·특

산물 영상 및 각종 공적교육자료 등을 제작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민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해 15명 내외로 남원시 미디어스튜디오 방송팀도 자체로 구성,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제작하는 등 각종 방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택트 행정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체 방송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송출함으로써 남원시만의 특별한 미디어 행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시청에 대해 더 쉽게 공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전주시,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115억 확보

시, 산림청의 '2022년도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15억 확보

전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돼 곳곳에 정원 명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최근 산림청의 '2022년도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5억 원 등 총사업비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사업'은 정원문화·산업 확산 거점 역할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해 한국판 뉴딜 사업기간('22년~'25년)동안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1차 심사에서 전북 내 4개 시군 가운데 대표에 선정된 전주시는 이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단 3개 지역을 선정하는 산림청 최종심사에서 경기 양평군, 강원 영월군과 함께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산림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공모사업 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으며, 전주시는 이에 따라 산림청의 사업방향에 맞는 사업내용을 적확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75억 원, 시비 40억 원을 투입해 전주지역 주요 거점 및 대표시설에 실내정원 8개소와 실외정원 7개소를 조성하고,

총 15개소의 아름다운 정원명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연도별 테마로 △2022년 '정원도시 전주의 첫인상을 엿다' △2023년 '저는 정원마을에 삽니다' △2024년 '정원에서 마음을 치유하다' △2025년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정원'으로 정해 각 테마에 따라 대상지를 발굴·선정해 정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원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녹색생활 공간을 확대해 그린뉴딜 사업에 탄력을 주고, 향후 생활정원과 지방정원과의 연계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 관



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특히 코로나 시대의 국가 재난상황 속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원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면에서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완주 청년키움식당에서 '뉴트로' 맛보세요

외식장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무 기회를 주고 있는 청년키움식당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왔다.

6일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외식산업 조리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완식당'팀이 운영을 시작했다.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뉴트로'를 기반으로 매장을 운영할 이번 팀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메뉴를 선보인다.

수제 소스와 넉넉한 크기의 경양식 포크 컷렛, 완주로컬산재료인 생강·무를 활용한 소고기 국밥, 회오리 달걀을 얹은 김치볶음밥, 담백한 맛이 일품인 소고기 육전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김광수/기자

또한 복고도 복고시대의 상징이었던 청바지, 청치마를 모티브로 청 앞치마를 착용해 복고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김춘만 단장은 "청년들이 청년키움식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창업 전 실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받아 훗날 외식장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은 완주군에서 4년째 운영하는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사업으로 군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외식 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익산시,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장비 지원

오는 10일까지 신청, 증빙자료 첨부해 방문·직접 신청



익산시가 석재가공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오염수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국도비 포함 총 2억3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관내 소재 석재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흡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

는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업체당 2천 975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0일까지며, 지원업체는 관내 석재가공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청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후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정된다.

신청 희망 기업은 2021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서(계획서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고용인원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시청 임시청사(익산시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신청장동력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나라도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고란(공고번호 제2021-2089호)을 참고하거나 e나라도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는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주변 지역주민과 업계종사자들에게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해 향후 석재산업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재가공업체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김성명 완주 부군수, 무궁화오토캠핑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김성명 완주군 부군수가 3일 고산면에 있는 무궁화오토캠핑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현장 지휘에 나섰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차원에서 이날 오후 방문한 김 부군수는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야영장 소방과 전기 시설 등 공공시설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 적극 나섰다.

김 부군수는 현장 점검에서 "가족단위나 지인들끼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캠핑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산면 고산휴양림로에 있는 무궁

화 오토캠핑장은 캠핑장 81면과 캐라반 8대, 취사장 5개소와 공동샤워장 2개소, 공중화장실 3개소 등이 있다. 연간 이용객이 작년까지만 해도 1만 5,000여 명에서 적게는 1만 1,000여 명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6일간 지역 내 21개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개선을 위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업무 공백을 고려해 시기와 점검 대상을 대폭 조정했다.

김광수/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의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천과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준다. 영양에서 2000년 전부터

물

영양은 천하의 명승지. 영양호는 천하의 명승지. 영양호는 천하의 명승지.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호는 천하의 명승지. 영양호는 천하의 명승지.

집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양호의 정자.

맛

사백년 전통의 맛. 영양호는 천하의 명승지. 영양호는 천하의 명승지.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양호의 정자.

김등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전길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방아놀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원주 관광 홍보 웹드라마 '러브 인 블랙홀' 설렘 폭발 티저 영상 공개

9월 17일 오후 6시 유튜브 첫 방송, 매주 금·일 업로드 예정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원주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는 원주 관광 홍보 웹드라마 '러브 인 블랙홀'의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러브 인 블랙홀'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맞춰 SNS 상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만든 드라마 형식의 영상 콘텐츠다.

총 12부작으로 1편당 10분 내외로 구성된 '러브 인 블랙홀'은 9월 17일 오후 6시 드라마 공식 유튜브 채널(빅픽처아트)을 통해 첫 방송되며,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특히, 출연자들이 자체 제작 OST(3곡)에도 직접 참여해 완성도



높은 노래로 원주시 홍보에 나선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화이트홀의 단서를 토대로 사랑을 찾아 나서

미로예술시장, 뮤지엄산 등을 드라마 배경으로 담아 원주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명소, 먹거리 등을 국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그룹 BAE173 한결, 우수소녀 설아, SF9 재운, BAE173 도하, 다이아 기획현, 권오중 등이 주연을 맡은 '러브 인 블랙홀'은 최근 설렘 가득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금산 출렁다리, 미로예술시장, 강원감영, 행구수변공원 등 원주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활용해 국내외 시청자에게 원주시와 원주 관광을 더욱 친근하고 강렬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청남도, 기업-대학 연계 연구개발 인턴십 진행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일환...맞춤형 인력 양성

충남도는 6일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인 '연구개발(R&D) 인턴십'을 충남산학융합원을 통해 지난 2달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도와 당진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충남산학융합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을 통해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학융합형 교육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충남산학융합원은 지난 7~8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서울기계공업)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자동차ICT공학과, 신소재공학과)를 연결해 연구개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정근기자

연구개발 인턴십 프로그램은 기업 실무를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우고 기업 문화를 배우는 등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전 사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다.

또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단기 육성하고 업무 적성과 능력을 검증해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과 대학 간 인력 수요 정보를 조사해 관리하고 학생들이 전공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연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산학융합지구 내 연구개발-인재양성-고용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산학융합원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외에도 지역기업의 활성화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충남산학융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동해시 발한지구,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사업대상지 모집

낡고 오래된 외벽 경관개선 / 신청 : ~ 8월 24일 / 사업진행 : 10월 4일 ~ 11월 12일

동해시는 발한지구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낡고 오래된 경관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벽화, 조형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낙후된 거리의 경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사업대상지(붉은언덕길, 마도로스 거리, 중앙시장 등)를 모집하고, 선정된 사업지에 대한 디자인 결정 후 주민들과 함께 대상지의 경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신청은 발한지구 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참고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되며, 최종 사업지는 9월 말 개별 고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한지구 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대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낙후된 거리에 주민과 함께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각적 효과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지역 청소년들과 예술가들이 마을 벽면을 활용해 공동벽화를 만든 마을 캔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동원기자



완전체로 변해가는 당진시민축구단!

창단 원년 우승을 목표로

2021시즌 K4리그 22라운드 경기가 당진시민축구단의 홈구장인 당진종합운동장에서 진행이 되었다. 5일 일요일 오후5시에 진행된 전주시민축구단과의 홈경기를 2:0으로 승리하면서 5백여 홈팬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우천으로 진행된 이날 승리를 통해 전날 승리한 포천시민축구단과의 승점1점차 2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3위팀인 충주시민축구단의 패배로 3위와의 승점차를 7점으로 벌리면서 우승경쟁 양강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날 당진시민축구단은 절대적 우세속에 경기가 진행되었으나 기다리는 골이 나오니 않아 답답한 전반전을 보냈다. 하지만 후반전 5분과 44분에 터진 방찬준(8번)선수의 멀티골로 이날 승리를 확정지었다.

당진시민축구단은 1주일 후에 K4리그 23라운드 상대인 시흥시민축구단과의 원정경기에 오르게 된다. 최근 갑파른 상승세인 시흥시민축구단과의 경기가 K4리그 우승 향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당진시민축구단의 홈경기는 당진종합운동장의 정비로 인해 남은



홈2경기는 보조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 승리하여 창단 원년 우승이라는 역사를 써 주기를 바란다"는 축구인들의 말처럼 창단원년 우승과 K3승격을 이루는 최초의 팀이 될지 기대를 하게 된다.

김원호기자

대전선사박물관, 집콕탐험대 '선사인의 의식주(衣食住)'운영



대전선사박물관은 9월부터 11월 까지 초등학교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2021년 대전선사박물관 집콕탐험대 '선사인의 의식주(衣食住)'를 운영한다.

'선사인의 의식주(衣食住)'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의·식·주생활을 이해해보고 관련 유물 등을 만들어보는 비대면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일 주제를 진행될 예정이다.

9월의 주제는 선사인의 의(衣)생활로 가락바퀴와 가죽가방을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실제로 가락바퀴를 제작하고 양모로 실을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뼈바늘에 대해 배워보고 바느질로 가죽가방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대전지역의 초등학교 동반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9월 7일 오전 10시

부터 선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6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는 교육꾸러미 수령 후 박물관 홈페이지의 교육영상과 교육체험지를 통해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10월에는 식(食)을 주제로 빗살무늬토기와 조개모빌만들기를 통해 선사인의 식생활을 체험하며, 11월에는 주(住)를 주제로 움집만들기를 통해 선사인의 주거문화를 체험한다.

대전시립박물관 정진제 관장은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선사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선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최



정선군의회는 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충표정선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27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는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한다.

6일 오전 11시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결의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정선군 폭력 피해 예방조례안,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7일과 8일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중 심의하고, 9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현장확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충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제4차 대응행으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방역과 5차 재난지원금 집행 등 행정역량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조혜영기자

양양군, 새로워진 양양물&스마트스토어 '추석명절 빅 이벤트' 진행

양양군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양양물&스마트스토어 20% 쿠폰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석명절 빅 이벤트 행사'는 새롭게 리뉴얼한 양양물 네이버 마트스토어의 오픈을 알리고 다양한 양양물 상품 노출 및 양양물 인지도 제고로 스마트스토어의 원활한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양양군 농민과 업체들을 돕고자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간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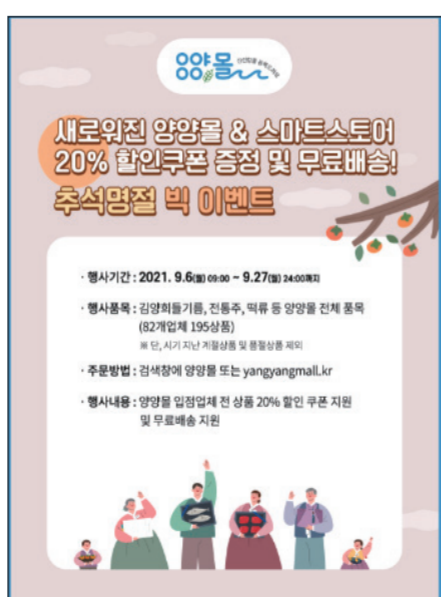
주문은 양양군 직거래쇼핑몰인

양양물을 통한 온라인 주문이며, 행사기간은 9월 6일부터 27일까지로 82개 업체 195여종에 대하여 20% 쿠폰할인과 무료배송의 혜택이 있다.

대상상품은 들기름, 전통주, 떡류, 현미빵류, 표고버섯류, 버섯너비아니류, 축산물류, 장류, 장아찌류 등이다.

군은 양양물 가입회원 및 구매고객 대상 홍보문자 발송, 관내 기업체 우편발송, 양양물 팝업창 게시, 물치 홍보전광판 활용 등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양양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할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서천군, 추석선물은 서천모아드림세트로!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경제쇼핑몰 '서천가득물'에서 서천지역 사회적경제기

업 제품으로 구성된 '서천모아드림세트'를 판매한다.

이번 서천모아드림세트는 ▲9가지의 제품이 한 곳에 모인 '모아드림세트' ▲소비자의 선택 옵션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DIY 세트', 총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포장패키지를 제공한다.

모아드림세트 구매 시 사은품 증정 혜택을 제공하고, 모든 세트 주문 시 활용 가능한 할인·무료배송 쿠폰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성동구,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

서울 성동구는 이달 1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 유공자 10명에게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최일선의 복지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자리로 마련됐다.

수상자는 24시간게스트하우스에서 10여 년 간 근무하면서, 노숙인들에게 건강한 식단 제공으로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힘써온 구씨를 포함하여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6명과 복지 담당 공무원 4명이 선정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축하 메시지와 지역 내 기관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만들어져, 9월 7일 온라인 기념식 영상으로 지역



기관에 송출되며, SD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5월 제정되면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

회적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간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독감예방접종, 심리치료 등을 지원, 이들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월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복지 취약계층이 더욱 늘어나면서 사회 안전망 확대가 더욱 필요한 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성동구가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제시하여 법제화된 만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군위군, (주)서광에너지 김휘대 대표 “계속되는 기부” 훈훈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지역 인재사랑을 담은 장학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주)서광에너지 김휘대 대표는 군위군청을 방문해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탁하였다.

김휘대 대표는 2017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지난해 4천만 원 기탁에 이어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또다시 기탁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김영만 군수는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김휘대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에서 보령시 '대통령상' 수상



보령시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26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광배 주무관이 ‘전통시장 무선지능형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사례로 ‘대통령상(최우수)’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제출한 35건 중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전통시장 무선지능형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9년 충청남도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환경이 열악한 한내시장과 동부시장 내 무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CCTV 관

제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종 재해사고 예방 및 조기 대응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주무관은 이 사업을 직접 설계해 사업의 감독을 맡으며 관련 시설물 관리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전통시장 내 골목골목 상가 업주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그간 상인들이 민감해하던 화재감지 오작동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전광배 주무관은 “앞으로도 최첨단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원호기자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여자중학교,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주관한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여자중학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주최한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을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해 개

최되었으며, 예선 평가 결과 8개 팀(중등 1팀, 고등 1팀, 대학 5팀, 일반 1팀)이 본선에 올랐다.

‘여중의 전설’ 팀으로 본선에 진출한 여주여중 학생들은 용인 소재 기업 행복한사과의 홍보 UCC 영상을 제출했으며, 기획성, 작품성, 활용성,

대중성 등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여주여중 3학년 고윤서, 김나경, 이서령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행사가 축소되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의미있는 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는 등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어 정말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한 채용기 지도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계기로 학생들 스스로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재은기자

시흥시 정왕본동 주민, 추석 맞이 이웃사랑 실천



시흥시 정왕본동 죽울동에 거주하는 이광동 주민은 지난 9월 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후원금 2백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광동 주민은 7년 전부터 정왕본동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마을 곳곳에 버려진 고철쓰레기를 주위 환경정화에 앞장서 왔다. 또한, 모은 고철을 팔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라면과 가래떡 등을 후원했다.

고령의 연세에도 80마지기 농사를 임차해서 짓는 등 근면 성실하게 생활 중인 이광동 주민은 트랙터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밭을 갈아주면서 이번 후원금을 틈틈이 모았다.

이광동 주민은 “제가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남을 도울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겸손의 말을 전했다.

오늘은 정왕본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후원금을 기탁해 주신 이광동 주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련해 주신 후원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준근기자

동해해경, ‘연안안전 체험 영상 공모전’ 우수자 표창

연안안전 체험 영상 공모전으로 비대면 참여 교육진행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19일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연안안전 체험 영상 공모전’에서 위원회를 거쳐 우수작 9건이 선정하여 표창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한 연안안전 체험 영상 공모전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연안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해양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총 59건의 영상이 공모된 가운데 지난 8월 19일 공모전 위원회에서 우수작 ▲동해해경서장상(해군1함대 김현경, 근덕지역아동센터, 삼척초 최가인) ▲강릉시장상(유전초 강민찬, 엔젤어린이집 김미희) ▲동해시장상(창호초 백소율, 동해해경청 어린이집 이은형) ▲삼척시장상(삼척어린이집 김서아·김우진 남매, 삼



척초 임근렬) 총 9건이 선정되어, 비대면 시상 및 상장과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지역인재키우기 장학금 기탁 이어져



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면서 지역 인재 키우기에 힘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일 고창읍에 거주하는 박길섭씨가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박길섭씨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사회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일 고창 출신으로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백종현씨가 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장학기금을 기부했던 백종현씨는 “고창 발전을 늘 기원하면서 고창의 자라나는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유기상 이사장은 “자식 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를 위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울려야 주셔서 감사드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지원과 우리 고창을 빛낼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 류경희 회장, '제15회 경상북도 여성상' 수상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 류경희 회장이 제15회 경상북도 여성상(양성평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인 류경희 회장은 전통다도 예절 전문강사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하회마을, 향교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인성함양과 후진양성 교육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지역방문 귀빈들에게 접빈다례 봉사를 통하여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2002년부터 전국유일 여성축제인 여성민속한마당 축제에서 화전제, 꽃집나르기, 전통차 시연 등 행사를 주도하였으며, 안동민속축제 행사가 되게 이항 추모 헌다례 시연을 시작으로 농암 이현보, 안동장씨, 공민왕을 추모하는 헌다례 공연

을 이어오으로써 안동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위인의 뜻을 기리고 전통문화 보급에 앞장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상북도 여성상은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6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의 여성상, 양성평등, 여성복지 3개 부문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금년도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9월 7일 경북도청에서 간소하게 열릴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경북여성상은 경북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동은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지역으로서 지속적



으로 인재를 발굴하여 그 정신과 뜻을 계승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대구시,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추석맞이 관광상품 판매

관광사업체의 식품 및 체험 등 7개 상품(업체)에 대한 판매 지원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아 침체된 지역관광 업체의 재도약을 돕고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맞이 제1탄 '두근두근 대구여행 라이브커머스'를 9월 6일부터 네이버에서 쇼핑라이브를 시작한다.

'두근두근 대구여행 라이브커머스'는 지난 7월 19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관광사업체 모집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신청업체 서류평가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20개 업체를 선정했고, 그 중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함께 진행할 13개 업체를 최종 선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추석 선물로 안성맞춤인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 중심으로 1차 라이브방송을 6회 진행하고, 10월에 숙박상품, 여행상품을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와 함께 시작한다. 9월 6일 북성로공구빵(공구빵)/데일리오아시스(사과주스)를 시작으로 프랜푸드(땅땅집밥), 커피명가(커피), 케이센스(카라임 인센스), 에스투뷰텍(뷰티케어), 대구활공랜드(패러글라이딩)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이번 라이브방송에서 참여기업과 협력해 역대급 할인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브방송 중에만 판매되는 상품은 최대 50~70% 이상 할인된 가격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어 추석 명절 선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라이브 알릴 받기 신청 또는 스마트폰스토어 접속하기로 추가 할인혜택 및 경품도 있으니 미리 라이브방송 일정을 체크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근두근 대구여행' 라이브방송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대구관광 공식 블로그(제멋대로 대구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라이브방송 전 사전 홍보 및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진행을 위해 구독자 5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조중현과 함께 하는 '두근두근 대구 랜선여행' 영상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업체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양질의 관광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나눔·상생의 공간인 '두근두근 대구여행 라이브커머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경북도·에스푸드, 식용곤충 '프로틴바' 정식 출시

곤충의 날(7일), 식용곤충 고소어로 만든 '프로틴(단백질) 바'



경상북도와 식품기업 에스푸드(경기 안성 소재)가 7일 곤충의 날에 맞춰 식용 곤충으로 만든 '프로틴 바.BETTER(제품명)'을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식용 곤충인 고소애(갈색거저리)를 넣어 단백질 최대 15g을 함유한 고단백 식품으로 개발된 '프로틴 바.BETTER(제품명)'은 성인남성 기준 단백질 하루 권장섭취량의 25%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

고소애와 오트밀을 기본으로 호박씨, 초콜릿 칩, 큰 크랜베리, 블루베리를 넣어 닛츠, 베리, 초코 3가지 맛으로 출시된다.

경북도와 에스푸드는 ▷작년 10월 '식용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공동 개발한 곤충신제품 6종에 대한 '뉴프로틴 곤충식품 시연회 ▷9월 '뉴프로틴 곤충식품 테스트 판매'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프로틴 바.BETTER'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생각하다' 등 식용 곤충의 영양, 환경,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

와디즈는 회원의 70% 정도가 가치 소비를 중요시하는 MZ세대로 젊은 층의 참여가 높아 곤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곤충의 날을 맞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곤충의 날 기념행사(농림축산식품부)'에 '경북도·에스푸드 뉴프로틴 곤충식품 홍보관'을 설치해 오프라인 출시행사도 진행했다.

에스푸드는 식용 곤충을 이용한 마들렌, 떡갈비, 미트큐브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리성을 갖춘 고단백 식품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곤충식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한국형 대체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곤충-양잠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전반의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곤충-양잠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은 어느 지역 보다 앞서 곤충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육성해 왔고, 앞으로도 경북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울산시, '2021년 세계(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사업' 추진

울산시, 9월 6일 ~ 24일 사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시는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성장 지원을 위한 '2021년 세계(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9월 6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동남아 진출 프로그램에 이어 하반기에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울

산테크노파크와 미국 버클리대학 창업지원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엑셀러레이팅 교육 △기업설명회(IR △우수기업 후속지원(컨설팅·투자자 매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엑셀러레이팅 교육은 3주간 진행되며,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장현황사업화 방향투자유치 전략 등 종합교육 과정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제공된다.

엑셀러레이팅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게는 기업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실전 기업설명회(IR) 참여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기업설명회(IR)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에는 미국시장 전문가의 1:1 컨설팅, 미국 현지 투자자와의 연결을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울산 기업으로 심사를 거쳐 10개사가 선정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진출에 도전하는 지역 창업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경북도, 전기차 대중화 시대 눈앞...1만대 돌파 전망



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자동차 2270대를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1295대)한 것으로 연말까지 총 4183대의 전기자동차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실적은 반도체 수급난, 코로나19 상황 등 전반적으로 보급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차종의 다양화, 충전여건 향상 등에 힘입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전기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400만원, 화물차는 2200만원, 버스는 9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보다 많은 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충전 여건도 개선했다. 금년 8월말 기준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4902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1751기)에 비해 큰 폭으

8월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 9683대

로 증가했다.

내년에도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충전 서비스 개선,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기술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증가로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는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시군 홈페이지 및 저공해차통합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 계약 후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세기기자

광주광역시경자청, 국제전기차엑스포 참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친환경 자동차 기업 유치를 위해 미래형자동차 분야 투자환경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경자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8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 참가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전기차엑스포는 올해 국내외 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청정·글로벌비즈니스 엑스포'를 타이틀로 ICC제주를 중심으로 한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경자청은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투자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 홍보관을 운영할 것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기업을 만날 수 있는 비주얼 전시, 기업미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두트랙 전략을 통해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내실 있는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포럼에서 맺어진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룹과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또 잠재투자 기업과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친환경 자동차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 1 비즈니스 미팅도 전개한다. 사전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미팅은 이미 영국, 중국 등 11개 국내외 기업(기관)과 매칭됐으며, 이들 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현장 미팅과 비대면 화상 미팅을 통해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알릴 예정이다.

김진철 청장은 "이번 행사는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와 인센터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 투자환경을 국내외 자동차업체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글로벌기업과의 기술협력, 지역 특화 자동차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경남 항공mro 사업 순조롭게 순항 중!



경남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mro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경상남도도와 사천시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kai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항공mro 산업단지 초기 착공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000억 원(도 400, 사천 600)의 예산으로 2018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항공mro 산업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지식기반 산업이자 고용창출 및 산업과급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항공mro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9년 1,628억 달러, 2020년 1,306억 달러였으며 2030년에는 1,96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로 2020년 항공mro 물량이 일시적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연평균 4.2% 증가가 전망된다.

국내시장 규모도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2019년 11억2800만달러에서 2020년 8억3600만달러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mro 물량 증가 및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2024년

부터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유일 정부지원 항공mro 전문업체이자 kai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주)는 2019년 제주항공 b-737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국내 1cc 업체들에 대한 기체 중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항공사의 민간항공기 81대를 정비(2019년 4대, 2020년 31대, 2021년 46대 수주)했고, 2021년 올해부터는 항공mro 정비 연간 5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규 행거등을 준공해 b737, a320 등 단거리 항공기를 연간 100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까지 회전의 전용 정비동 건설 전문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경남 항공정비 산업이 기체 중정비에 그치지 않고 부품정비, 성능개량으로 확장하는 데 사천이 그 중심에서 경남 항공산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부터 연간 50명의 현장 맞춤형 항공정비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 한국항공서비스(주)와 협약을 체결, 실무에 투입 가능한 항공정비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경남을 항공정비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최광윤기자

부산시, '동백상회'에서 부산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

부산시는 9월 6일부터 23일까지 부산지역 우수제품 쇼핑상 '동백상회'에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층(105호)에 있는 동백상회는 부산 우수제품의 홍보, 판매를 작년 11월에 문을 열었고, 현재는 부산기업 56개사가 입점하여 370여 개 우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산 프리미엄 막걸리, 막걸리 지게미로 만든 비누와 미역 등 수산물, 부산 우수식품으로 선정된 향토기업의 전병, 부산 대표 신발, 화장품 등 부산기업이 만든 우수제품이 총망라되어 있어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우수제품 판매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케팅,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동백상회에 입점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시 및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동백상회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부산을 알리는 대표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만들어,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부산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새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 이세영, '궁녀 성덕임' 첫 스틸 공개

'SNL코리아' 레전드 크루 신동엽, 제작자 합류

이 세 영, 이 준 호 사 로 잡 은 싱 그 러 운 자 태

MBC 2021 하반기 기대작 '웃소매 붉은 끝동' 이세영의 첫 현장 스틸이 공개됐다.

오는 11월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 뜨거운 인기를 구가한 강미강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명실상부 사극의 명가' MBC가 심혈을 기울여 선보이는 정통 사극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웃소매 붉은 끝동' 측이 3일, 이세영의 첫 촬영 스틸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연분홍빛 저고리와 정갈하게 맺은 머리, 팔간 얼굴이 사랑스러운 생각이

는 웃고름과 치맛자락이 마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나비 같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궁녀 성덕임'으로 변신한 이세영이 '왕세손 이산' 이준호와 어떤 궁중 로맨스를 선보일지 궁금증이 수직 상승한다.

이제 '성덕임'은 생각할 수도 없다"면서 "이세영은 오랜 연기 경력을 통해 다져진 탄탄한 내공으로, 당차고 소박한 인간 성덕임과 기품 있는 궁녀 성덕임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다.

MBC 새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은 '자체발광 오피스',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를 연출한 정지인 감독과 '군주-가면의 주인'을 공동 집필한 정해리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오는 11월에 첫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완벽 업그레이드 X 가장 SNL스러운 시즌 예고



능계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신동엽. 오랜 시간 합을 맞춰온 'SNL 코리아' 제작진과 의기투합하여 새로운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역대급 SNL스러운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한층 기대감을 높인다.

거침없는 풍자와 패러디, 신선한 유머와 고품격 웃음을 선사할 쿠광플레이의 첫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제작 에이스토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아 신동엽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눈길을 모은다.

호스트 섭외부터 신인 크루 오디션까지 낱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동엽은 이제껏 쌓아온 내공을 폭발시키며 자비 없는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작에 참여한 신동엽을 필두로 믿고 보는 레전드 크루는 물론 새로운 뉴페이스의 합류까지 완벽히 업그레이드된 'SNL 코리아'는 다가오는 9월 4일 토요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더 세고, 가장 강렬하게 완벽히 새로운 모습으로 쿠광플레이를 통해 돌아오는 'SNL 코리아'의 신동엽이 크루뿐만 아니라 제작자로도 참여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쿠광플레이를 통해 4년 만에 부활하는 NBC의 대표 프로그램 'SNL 코리아' 총 10회에 걸쳐 시청자와 만나는 'SNL 코리아'는 저마다의 개성으로 무장한 13인의 크루진과 함께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아지경의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동엽은 신동엽이 이번 시즌 특별히 제작자로 나서 눈길을 모은다. 신동엽이 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탁월한 코미디 센스로 에

최재은기자

'기적' 임윤아 vs '영화의 거리' 한선화, '사투리 연기' 맞대결



난생 첫 사투리 연기에 도전하는 한선화와 임윤아가 각각 '영화의 거리', '기적'으로 추석 극장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두 배우 모두 걸그룹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도 극 중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필지, 실제 사투리 사용자들을 포함한 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윤아-박정민 주연의 '기적'은 오는 15일 개봉, 한선화-이완 주연의 '영화의 거리'는 하루 뒤인 16일에 개봉한다.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차

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준경'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공조'부터 '엑시트'까지 특유의 당차고 발랄한 매력을 선보여온 임윤아는 거침없는 행동파이자 자칭 뮤즈 '라희' 역을 맡았다.

박정민은 영동함과 비범함을 모두 갖춘 시골 마을의 4차원 수학 천재 '준경' 역을 맡아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해냈다.

했다. 한선화는 '영화의 거리'에서 로케이션 매니저 '선화' 역을 맡았다.

실제 부산이 고향이라는 한선화는 "지금껏 작품을 해오면서 고향 사투리를 쓰면서 연기에 본 적이 없다. 사투리로 편하게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사로잡은 작품이다.

'영화의 거리'는 광안대교, 송도 케이블카, 부산 현대미술관 등 부산의 명소를 담아낸 아름다운 로케이션과 미장센까지 특별한 볼거리로 관객들을 스크린 힐링 여행으로 초대할 예정이다.

김민근 감독은 캐스팅 계기에 대해 "부산이 배경이라 부산 지역 출신을 찾고 싶었는데 두 배우에게 사나리움을 줄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공효진-이전희-전혜진, 탄소제로 도전기!

20년 절친 배우 공효진, 이전희, 전혜진이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미션으로 프로그램 제목 공모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배우 공효진, 이전희, 전혜진이 '희효진'이라는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스틸을 게재하며 근황을 전제 시선을 강탈한다.

공개된 인스타그램에는 20년 절친이기도 한 세 사람이 은밀하게 작당 모의하는 것은 물론 '10년차 부부' 이전희, 전혜진의 무해한 데이트가 담겨 이들이 함께 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책'을 발간할 만큼 환경 이슈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남다른 고민과 실천을 지속해왔고 이전희, 전혜진 또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삶을 애용하는 등 선행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 연예인으로 알려져 기대를 더욱 높인다.

이에 이들이 '배우'가 아닌 '일상' 속 탄소제로 실천가로 선보일 저탄소 노마드 라이프와 비밀 프로젝트의 전황 전케미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예능계에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공효진, 이전희, 전혜진이 손 잡은 KBS 환경 예능은 오는 10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본(本) 그리고 상(象)' 무대

국립국악원은 오는 8-9일 오후 7시 30분 양일간 무용단의 기획공연 '본(本) 그리고 상(象)'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올린다.

우리 춤의 원형을 간직한 6종의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은 '본(本)'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명무들이 안무한 8종의 명작무를 '상(象)'으로 상징해 각각 이틀에 걸쳐 선보인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은 전통춤을 품격 있는 문화제로, 멋을 담은 공연 예술작품으로 서로 비교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본(本)을 상징하는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들은 8일 무대에서 선보인다. 경기수간춤(의정부 향토문화재 제22호), 한량무(서울시무형문화재 제45호), 교방구거리(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호남산조춤(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진주검무(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동래학춤(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등 국가무형문화재부터 향토문화재까지 6작품을 선정해 다양한 색의 우리 춤을 선보인다.

상(象)을 상징하는 무대에서는 대신무(진유림), 진쇠춤(조흥동), 장한가(국수호), 산조춤(황무봉), 소고춤(최종삼), 설장구(김병섭), 진도북춤(박병천), 양산사찰학춤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명무들이 안무한 명작무가 무대에



오른다. 큰 스승이 만들어낸 춤사위에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의 땀과 열정을 더해 그들의 새로운 무대를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최민식기자

이종석, '빅마우스'로 3년 만 드라마 복귀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한 이종석이 tvN 새 드라마 '빅마우스'로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왔던 그가 하드보일드 노아르 '빅마우스'를 선택해 드라마 자체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종석의 소속사 A-MAN프로젝트(이하 에이맨프로젝트)는 1일 "이종석이 드라마 '빅마우스'의 주연으로 출연을 최종 확정 지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드리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라 밝혔다.

tvN 새 드라마 '빅마우스'는 승률 10%의 생계형 변호사가 우연히 맡게 된 살인 사건에 휘말리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류야청에 희대의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Big Mouth)'가 되는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음모로 얼룩진 특권층의 민낯을 파헤쳐 간다.

이번 작품의 제목인 '빅마우스'는 이종석의 캐릭터 그 자체다. 그가 맡은 주인공 '박창호'는 승률 10%의 생계형 변호사로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성격 탓에 범조계 사람들에게 떠벌이 '빅마우스(Big Mouth)'라고 불리는 남자지만, 눈을 떠보니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Big Mouth)'로 지목되어 목숨을 위협받는 신세가 된다.

이런 동일한 수식어 사이 흥미로운 간극에 빠진 캐릭터를 이종석은 특유의 완성도 높은 연기력과 극과 극을 절묘하게 오가는 표현력으로 완성해 낼 예정이다.

특히 '빅마우스'의 '박창호'는 그동안 이종석이 연기했던 만화 속 주인공을 방불케 하는 낯다른 사연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캐릭터들과는 달리,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 설정에 이종석만의 색깔이 덧입힐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또 작품을 보는 탁월한 해안으로 유명한 그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커다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유주기자